

전남

고령화 전남 농기계 사고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전남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에 제출한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천749건이 발생해 251명이 사망하고 2천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5년 97건 ▲2006년 65건 ▲2007년 83건 ▲2008 94건 ▲2009년 1~8월 5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중 발생 건수

도 모두 390건에 달해 전국 농기계 사고 발생률의 22%를 차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간 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상자도 448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농기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39.5%로 가장 많았고 ▲작업여건 22.6% ▲운전미숙 19.4%

▲기계고장 8.6% 순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찰청 자료는 농기계 교통사고 중 제 1당사자인 경우에만 한정된 결과라며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도 소방본부에 집계한 원인은 전남지역 농기계 안전사고 발

22명·부상자 326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농기계 전복, 추락사고가 209건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농기계 조작 미숙에 의한 기임·놀림 등의 사고 51건(15.7%) ▲교통사고 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기계 보급의 확대 등으로 농기계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도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교육 의무제 검토 외에 부주의, 운전미숙 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

최근 5년간 사망 82명 전국 최고 안전교육 의무제 등 대책 마련해야

해양 방재 기자재 비축기지

광양에 국내 최대규모 준공

여수해양경찰서

광양에 기름 유출 등 해상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동 조치에 필요한 방재 기자재를 보관해두는 전국 최대규모의 비축기지가 들어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규)는 8일 광양시 중동에서 이길범 해양경찰청장과 이성웅 광양시장,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경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 방재 기자재 비축기지 준공식’을 가졌다.

광양항 중마 일반부두 옆 해안도로 변에 위치한 방재 비축기지는 1천813㎡의 부지에 연면적 2천672㎡로, 3층 규모의 창고동과 2층짜리 관리동, 방재훈련용 인공수조를 갖췄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3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0개월 만에 완공됐다.

비축기지는 중유(重油) 1만 유출사고를 기준으로 초기 3일간 초동 방재에 필요한 유류총량 60t, 고점도 유(油) 이송펌프 10대, 고압세척기 3대, 7천700병의 방재작업복, 지게차 3대 등 각종 기자재가 상시 보관된다.

비축기지 신축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의 유조선 기름유출 등 국가재난적 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규모 소모성 방재물자 비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남해안 일대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동원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청자에 문양 새기는 스웨덴 학생들

지난 7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왕국대사관에서 개최된 강진청자 유럽전시회보전에서 현지 학생들이 청자에 문양을 새기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4월부터 유럽전을 시작, 8일 스웨덴에서 피날레를 장식했다. (강진군청 제공)

이들은 농림수산식품부 대상자 평

“이번엔 농촌마을개발사업 꼭 유치”

여수 ‘죽포권역’ 주민, 결의문·거리행진

여수시 돌산읍 죽포권역 주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죽포권역 주민들은 지난달 전남도 자체심사에서 16개 권역 중 2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후보지로 확정됨에 따라 권역 추진위원회와 마을주민들은 ‘이번엔야 말로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주민들은 지난 5일 여수시 돌산읍 돌산강변농조합 회의실에서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치 결의대회’를 통해 뜻을 더욱 다졌

다. 이들은 농림수산식품부 대상자 평

가 최종 선정을 위해 결의문 낭독과 거리행진을 벌였다.

지난해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죽포 권역 주민들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권역 입구인 죽포 삼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죽포권역 꼭 유치하자’ 등의 구호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해 심사에서 탈락 후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져 올해는 반드시 선정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행정지원

을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ykpark@

신안 우이도 이번엔 분재로 뿔다

주민들이 키운 1,600여점에 관광객 탄성

‘동양 최대’인 모래언덕(砂丘)으로 유명한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가 주민들이 키운 아름다운 분재로 주목받고 있다.

우이도에 들어서면 주민들이 무었보다 아까운 애장품인 소나무와 소나무·동백·보리밥 나무 등 30여 종의 분재 1천600여 개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이도 주민 가운데 김병우씨가 가장 많은 160여 점을, 문준남씨가 보리밥 나무·눈향나무 등 120여 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민 대부분이 평균 30여 점씩의 분재를 정

성껏 기르고 있다.

특히 마을 골목길로 들어가면 보리밥 나무를 돌담에 올린 형식으로 길게 늘어뜨려 옛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해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청정해역과 색다른 체험코스로 관광객의 주목을 받는 우이도에 섬 고유수종 및 희귀수종의 분재를 특성화해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분재온실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우이도 사구는 높이 70~



80m, 아래쪽 너비 20m·위쪽 너비 50m, 경사 70~80도로 웅장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래가 점점 줄어들면서 아름다운 경관이 망가지자, 군은 원인조사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전남 벼 줄무늬 잎마름병 12배 급증

병해충 발생 면적 전국 두번째

최근 5년간 전남지역의 벼 병해충 발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타 시·도보다는 여전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촌진흥청이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완도·진도)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690개 관할 포 중 전남지역의 벼 병해충 발생면적은 모두 9만4천418ha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관할포의 벼 병해충 발생면적은 2005년 17만3천634ha, 2006

년 19만993ha, 2007년 17만8천39ha, 2008년 9만8천792ha 등 매년 감소했다. 그러나 전남도내 벼 병해충 발생면적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 지역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는 벼 병해충이 발생한 46만6천167ha 중 충남이 12만2천730ha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9만4천418ha), 경북(7만4천887ha), 경남(6만4천165ha) 순이었다.

특히 벼 생육에 가장 치명적인 영

향을 미치는 벼 줄무늬 잎마름병은 전국 발생면적이 2006년 480ha에 그쳤지만 2007년 1만4천137ha, 2008년 6천6ha에서 올해는 2만1천541ha로 크게 증가했다. 전남지역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발생면적도 2008년 689ha에서 올해는 8천508ha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벼 줄무늬 잎마름병에 대한 경고가 계속됐는데도 피해면적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병충해 예방대책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

해남군 ‘고구마 특구’ 지정 추진

해남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 특구’ 지정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해남 고구마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특구 지정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식 해남군수는 “특구 지정은 해남이 전국을 대표하는 고구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토자원인 고구마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국제사업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주요 특산물인 고구마에 대해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조직배양 무병묘’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화 사업에도 주력하며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해남=박희화기자 dia@

터가 가동되는 등 생산과 가공, 유통이 폭넓게 발달해 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인 브랜드 지명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식 해남군수는 “특구 지정은 해남이 전국을 대표하는 고구마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토자원인 고구마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국제사업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주요 특산물인 고구마에 대해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조직배양 무병묘’를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화 사업에도 주력하며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다. /해남=박희화기자 dia@

노인교통사고·범죄피해예방 보성경찰 ‘경1노’ 제도 시행

보성경찰서는 지난 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창식 경찰서장, 정중호 보성군수, 임한정 대한노회 회장, 최영희 보성군수 참모장 등 노인교통사고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적극 지원해 교통사고 약자인 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성경찰서는 ‘경1노’ 제도 시행, 담당경찰관 지정 등을 통해 노인인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nd a table of propertie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OMECON. Features the slogan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and lists services for solar power site acquisi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투자클럽.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